



윤리적 소비의 이해



- 01 현대 소비사회의 특성
- 02 소비윤리와 윤리적 소비





현대 소비사회의 특성



자본주의는 대중들이 대량소비를 하는 데 기대어 움직이는 체제다.

곧 소비자들에게 욕망을 부추김으로써 욕망의 확대 재생산을 무한히 증폭시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소비자로서의 욕망을 스스로 자제할 수 없다면

지구상의 유한한 자원은 멀지 않아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소비로부터의 자유’가 절실하다.

– 김덕호, 『욕망의 코카콜라』 중에서

생각해 봅시다

- ‘희한한 빵집’의 빵을 먹기 위해 멀리 도쿄에서 시골의 한적한 마을까지 몇 시간이나 걸려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 흔한 빵(상품)과 진짜 빵(상품)의 차이는 무엇인가?

희한한 빵집

EBS 지식채널e 2016. 4. 27.

호밀빵 있나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 빵을 만들지 않습니다.

건포도 호두빵 있나요?

죄송합니다. 다 팔렸습니다.

그럼 식빵은?

죄송합니다. 오늘은 휴무일입니다.

일본 남서부 오카야마현

그곳에서 다시 전철로 2시간

산 중턱 위 100년 된 고택에 문을 연 희한한 빵집

일주일에 사흘 : 휴무

일 년에 한 달 : 장기 휴가

나오는 빵 : 요일마다 다름

빵 가격 : 시중의 약 4배

늦게 오면 치즈빵은 없으니까

아침부터 와서 기다렸죠.

빵이 달지 않은데 이렇게 맛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이 빵을 먹기 위해 도쿄에서 왔습니다.

그 빵의 재료 : 달걀, 버터, 우유, 설탕이 아닌

농약과 비료가 섞이지 않은 그 지역의 밀과 깨끗한 물



고택에는 접착제나 방부제 같은
화학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시골의 깨끗한 공기와 어울려서
‘이것’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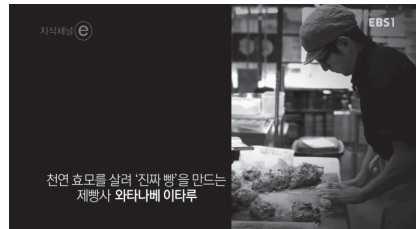


특유의 단맛, 독특한 신맛, 묵직한 맛,
수십 가지 전혀 다른 맛을 내는 ‘이것’
‘천연 효모’

천연 효모는 모두 맛과 향이 다릅니다.
천연 효모의 생명활동으로 빵의 다양하고 깊은 맛이 탄생합니다.

빵 고유의 맛과 향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3일
인공 효모를 쓴다면 3시간이면 완성되는 빵
빨라지는 대신 ‘빵 맛’을 내기 위해 추가되는 설탕과 버터
인공 효모가 가져온 값싸고 달콤한 흔한 빵들의 전성시대

제빵 보조로 일할 때 하루 15시간 이상씩
빵을 그저 찍어내듯 만들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회의를 들더군요.
내가 만드는 게 음식일까? 상품일까?



빨리 많이 만들수록 낮아지는 빵의 가격
빨리 많이 만들수록 값싸지는 일자리
빨리 많이 만들수록 낮아지는 삶의 질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느 제빵사의 선택

진짜 빵을 만들자!
살아 있는 빵을 만들자!

천연 효모를 살려 ‘진짜 빵’을 만드는 제빵사 와타나베 이타루
그의 경영원칙
내가 사는 고장의 재료 쓰기, 천연 효모로 정성껏 만들기, 적당한 가격에 적당량만 팔기,
빵을 잘 만들기 위해 반드시 빵을 안 만드는 시간 갖기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더 많은 빵을 만들지 않나요?

깨끗한 자연의 산물 천연 효모는 인간이 욕심내지 못하게 합니다.
무한히 생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저 효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에 따라 빵을 굽습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러우니까요.

참고 :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 와타나베 이타루, 더숲, 2014

소비윤리는 현재 우리의 소비생활에 대한 문제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소비윤리를 논의하기에 앞서 과잉 소비와 과잉 폐기를 부추기는 오늘날 소비사회의 특성과 문제점을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 인류가 공동으로 당면한 소비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구체적인 지속 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협약을 이끌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성공 여부는 전 세계, 특히 경제적으로 발달한 선진국 소비자와 기업이 얼마나 행동으로 실천하는가에 달려있다.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가 타인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사회와 환경에 유익한 선택을 추구하는 윤리적 소비를, 기업은 ESG와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소비사회의 발달

근대적인 소비사회의 시작은 19세기 말의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철도, 전보, 전화 등 근대식 교통·통신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대량으로 생산된 제품들을 전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대중소비시대의 서막이 올려졌다(질 리포베츠키 저, 정미애 역, 2009).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구매와 소비를 안내하는 기제들, 예를 들면 백화점, 브랜드, 포장, 광고와 같은 시장 요소들이 처음으로 생겨난 것도 이 시기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대형상점과 대형할인매장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대중이 소비사회의 주체가 되는 소비사회가 도래했다. 소비자들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중산층이 부상하는 소비사회에서 소비생활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가치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는 것이다. 산업사회 초기에는 가정마다 자동차와 텔레비전을 비롯하여 생활의 편리를 가져다주는 각종 가전제품 등을 구비하여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고, 더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소비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소비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소비를 통해 표출되는 생활양식이 자신이 소속된 사회 계층이나 사회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고, 개성을 드러내며 정체성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원하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었다(Bourdieu, 1984). 현대 소비사회에서 소비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성공을 드러내는 기호이자 사회적 지위의 징표로 작용한다. 따라서 소비재의 선택에 있어서 제품이 내포하는 상징이 중시되고, 제품은 사회적 소속감이나 자아정체성을 드러내는 차별화의 코드로서 소비된다.

소비자의 제품과 서비스 선택의 기준이 기능보다 개인적·사회적 정체성을 표출하고 구성하는 상징과 기호로서의 사회문화적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 없거나 망가지거나 사용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광고, 드라마, 유명 연예인의 소비로부터 끊임없이 새롭게 창출되는 이미지를 갖추고 소비사회에 뒤처지지 않고 참여하고자 하는 소비욕망에 따른 것이다. 소유하는 물질과 소비생활 양식을 통해 사회적 우월감을 드러내고 타인의 사회적·경제적 정체

성을 판단하기도 한다.

고도소비사회에서 소비를 부추기는 다른 중요한 기제는 소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적인 동기이다. 감정적, 신체적, 감각적, 미학적이고 관계를 중시하며 재미있고 기분을 전환해 주는 상품과 서비스에 소비자들은 열광한다(질 리포베츠키 저, 정미애 역, 2009). 특별한 경험과 감각을 느끼고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등 개인의 취향과 선호를 충족시키는 소비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긴다. 소비사회에서 소비는 즐기고 일상의 생활공간에서 작은 기쁨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하나의 놀이로서 개인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2. 현대 소비사회의 문화적 특성

상품과 서비스가 상징과 코드로서 소비되고, 소비를 통해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 소비사회의 특성은 과시소비, 물질주의, 상징소비, 소비주의라는 네 가지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그 내용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과시소비

우리는 일상적 삶에서 과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과시적 여행, 과시적 여행, 과시적 소비를 비난하면서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적 행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산업시대 초기부터 상층계급은 경쟁적 소비를 하고 하층계급은 모방적 소비를 따라하며 소비를 통해 신분적 위계를 드러냈다(Simmel, 1978: chap. 5, 6). ‘과시소비’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소스타인 번드 베블런(T. B. Veblen)은 산업시대 초기 부유층인 유한계급은 근면과 협동과 같은 직업윤리보다 부의 과시에 집중한다고 비판했다. 베블런에 따르면 과시소비란 실용성을 떠나서 의례와 과시를 위해서 부유함을 상징하는 소비에 몰두하는 것이다(Veblen, 1953, pp. 41-80).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의 과시소비는 사회 전반에 모방 소비와 경쟁적 소비를 부추긴다. 사회 전반에 제품 소비를 촉발시키기를 원하는 사업자들이 자사의 제품을 이용하는 유명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들에게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물질주의

현대 소비문화를 특징짓는 물질주의는 재화의 소유, 축적, 쾌락적 소비에 대한 강한 욕망, 행복과 성공을 위해 물질의 소유와 돈이 중요하다는 가치, 물질적 소유가 삶의 중심이 되며 인생의 만족과 불만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천이라는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송인숙, 1991; Belk, 1984; Richins & Dawson, 1992; Ward & Wacknam, 1971). 소비사회의 물질주의 성향을 연구한 리친스와 다슨(1992)에 따르면 물질주의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의 소유가 삶의 중심을 차지하여 물질의 획득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삶을 구성하고 행동을 결정짓는다. 둘째, 물질의 소유를 통해 행복을 추구한다. 물질의 소유나 획득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삶에 만족감을 경험한다. 셋째, 물질의 소유를 통해서 삶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특성이 있는데, 소유물과 소비 수준이 자신과 타인의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물질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물질적 소유를 통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다. 그러나 물질주의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물질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낮을 뿐 아니라 자존감이 낮고 외로움과 불안 수준이 높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3) 상징소비

재화는 세계관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이유는 기능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음식을 먹는 것이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는 것 등)뿐만 아니라 상품이 내포하는 의미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다. 의미를 지닌 재화의 소비를 통해 사람들은 자기를 표현하고 상호 간에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는데, 재화의 기능적 사용을 넘어 자아정체성을 전달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으로서의 소비를 상징소비라고 한다.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은 본래적 실용성보다도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소비의 상징성과 상호 의미 전달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보드리야르 저, 이상률 역, 1991).

4) 소비주의

과시소비, 물질주의, 상징소비라는 현대 소비문화의 특징은 모두 소비주의로 귀결된다. 소비주의는 제품 구입을 통해 만족을 추구하고 소비욕구의 만족을 목적이거나 의무처럼 생각하는 태도이다(손상희, 1997). 소비주의는 삶의 목표로 재화의 소유와 소비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사회에 만연한 시대사조가 되었다. 현대인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들의 개성이나 사회적 지위를 보여 줄 수 있고 또한 자신이 갖고 있던 욕망이나 꿈을 실현하기도 한다(Ferraro, 1991). 생산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운송수단 및 광고매체의 발달,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이제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다. 소비주의가 지배하는 “지구는 떠돌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상점이다”(White, 2005). 현대 소비사회의 소비문화는 한마디로 ‘소비를 위한 소비’라고 할 수 있다(박선정, 2006).

3. 현대 소비사회의 문제

소비재의 교체와 구입은 일상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자원이 소비되고 폐기된다. 제품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대량으로 소비되는 현대 소비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1) 환경오염

화학 살충제의 오용이 어떻게 생물과 가축, 인간을 위협에 빠뜨리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한 한 권의 책,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통해 미국의 여류 생물학자 레이첼 카슨은 각종 세제, 화장품, 해충 방지제와 살충제 등 일상적인 소비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유해한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미국 농촌 지역의 많은 마을에서 소와 양 떼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봄을 알리는 새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원인이 농작물의 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에 있었다. 이 책은 밭과 초지에 뿌려진 살충제가 어떻게 토양과 하천 및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인체에 흡수되

어 사람에게까지 해를 입히는지 그 경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숲, 과수원, 밭에 살충제를 아주 조금 사용한다고 해도 몇 년 동안 반복되면 엄청난 양이 토양 속에 쌓이게 되고(레이첼 카슨, 83 : 4-5), 이런 토양에서 자란 작물은 살충제를 흡수한다. 살충제가 뿌려진 토양에 비가 내리면 살충제 성분은 땅 밑의 지하수, 시냇물, 강, 저수지 등으로 이동하게 된다.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은 농작물과 정원, 숲과 밭에 뿌려진 살충제뿐 아니라 도시와 마을에서 흘러보낸 생활폐수,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등 다양하다. 미국의 수질오염 전문가들은 세제야말로 상수원의 가장 심각한 오염원이라고 지적한다. 시내물과 우리가 마시는 물에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는 도처에서 발견된다(65 : 9-10).

각국의 규제 기관은 ‘허용량’이라는 오염의 최대 한계치를 설정하고 있다. 허용량 기준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유독물 실험을 토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양보다 훨씬 낮게 설정되기 때문에 이 안전 기준을 지키는 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규모이지만 매일 또는 매년 지속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뚫는 것처럼, 셀 수 없이 다양한 식품 속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양을 각기 더해 그 전체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엄격하게 통제된 동물 실험실 상황과 달리, 토양이나 물이나 인간의 피속으로 유입된 화학물질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섞이게 되면 그렇지 않던 물질도 유독성분으로 바뀌는 알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레이첼 카슨은 이 경우 특정 식품의 화학잔류물 안전 기준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물질에 따라 허용량을 축소하거나 취소하기도 하는데 대중이 이미 충분히 위험한 수준에 노출된 이후에나 가능하다. 레이첼 카슨은 ‘잔류 허용량 기준’은 농부와 제조업자들에게 생산 비용 절감이라는 혜택을 주지만 사람이 먹는 음식에 독성 화학물질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오염물질, 오염된 물, 잔류 농약, 약품과 화장품, 목재용 방부제, 페인트와 잉크 등의 착색제 등에도 발암물질인 비소가 존재하고, 살충제, 제초제, 곰팡이 제거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가소제, 의약, 옷, 절연체 등에 널리 사용되는 우레탄 역시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졌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매우 미미한 양이지만 다양한 발암물질에 노출되기 쉽다. 정상세포가 악

성세포로 변하는 방식에 관한 암세포의 기원을 연구하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생화학자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에 따르면 세포가 다량의 발암물질을 한꺼번에 흡수하면 바로 죽지만 소량을 반복적으로 흡수하면 세포들이 상해를 입은 채로 살아남게 되고 이렇게 살아남은 세포가 암세포로 전이된다고 한다. 따라서 발암물질에 안전치가 존재할 수 없고, 또한 두세 종류의 발암물질이 함께 작용하면 한 가지 화학물질이 다른 물질에 영향을 미쳐서 그 효과가 더욱 복잡해지기도 한다(레이첼 카슨, pp. 259-267). 레이첼 카슨은 사람들이 흘려 보낸 화학물질도 자연의 순환에 따라 움직이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물질들이 음식과 식수와 공기 속의 남아 있게 되는데 인체에 수년간 지속적으로 계속 흡수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카슨에 따르면 대부분의 발암물질을 만들어낸 장본인은 바로 인간이다. 좀 더 편하고 쉬운 생활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우리 환경에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는 음식과 식수와 대기를 오염시키는 발암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은 원하기만 하면 그 위험물질의 상당수를 없애버릴 수 없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화학물질로 오염된 땅에서 재배한 농작물과 그것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의 소비를 거부하는 것이다.

한편 플라스틱은 매년 4억 톤 정도가 생산되는데 이 중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지는 일회용 포장 플라스틱(쇼핑백, 음식물 포장, 용기, 빨대, 컵, 일회용 수저, 포크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6% 정도이다(UNEP, 2018). 일회용 포장용 플라스틱은 세계적으로 매년 1~5조 개, 1분에 약 1,000만 개가 소비되고 있다. 이는 지구를 1시간에 7회 돌거나 프랑스 면적의 두 배를 덮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한다. 한국의 1인당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50%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로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은 엄청난 규모의 쓰레기를 배출한다. 플라스틱 쓰레기 중 재활용되는 비중은 9%에 불과하고, 약 12%는 소각되며,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79%는 매립되어 버려진다(UNEP, 2018). 버려진 플라스틱은 생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미세입자)으로 잘게 쪼개져 땅과 바다에 분포하는데, 먹이사슬을 거쳐서 결국 사람들이 먹는 어류, 해양생물, 소금, 수돗물, 생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

고 있다.

최근 독일 바이노리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에서 방출되는 비스페놀 A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음식 포장재로 많이 사용되는 스트로폼은 발암성 독성 화학물질인 스티렌과벤젠을 함유하고 있어서 음식 용기로 사용하면 음식에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으며 특히 음식물을 용기에 넣은 채 가열하면 위험성이 증가한다. 플라스틱이 주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가방이나 장바구니를 이용하고 카페나 식당, 음식물 포장에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며, 과대포장을 거부하는 등 플라스틱을 줄이는 단순한 행동부터 실천해야 한다.

2) 자원 고갈

천연자원 고갈, 환경오염, 개발도상국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 핵무기 개발 등 인류를 위기에 빠뜨릴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세계 여러 국가의 과학자, 경제학자, 교육자, 경영자들이 모여서 민간연구 단체인 로마클럽을 설립하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1970년에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인구 증가, 공업 산출, 식량생산, 환경오염, 자원 고갈 등 5가지 요소에 대해 1900년부터 1970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성장 계수를 도출하고 이 비율로 계속 증가한다는 가정하에서 2100년까지의 추세를 분석하였는데,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부존자원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여, 결국 가용 부존자원의 양이 인구 성장을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인류를 위협하는 과잉인구, 환경오염, 자원 고갈, 식량부족 등의 문제들은 그중 어느 것 하나를 해결하려면 다른 부분을 훼손시켜야 하는 상호의존적 관계로 얽혀 있어서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렵다. 예를 들면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숲을 개발하고 더 많은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면, 환경을 해치게 되어 결국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다.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고 경제 개발을 하게 되면 자원 고갈이 앞당겨지게 된다. 결국 인류의 미래에 대해 현재의 성장추세가 감소되지 않는 한 환경적 재앙과 붕괴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로마클럽의 보고서는 국제사회

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3) 기후변화

최근 세계 곳곳에서 가뭄, 홍수, 태풍, 대형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를 겪으면서 극심한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여름철 아시아 지역 전반에 걸친 극심한 폭우, 미국에서는 서부지역의 이례적인 폭설과 한파, 더욱 강력해



진 중부지역의 토네이도와 동남부 해안지역의 태풍, 호주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된 대형 산불,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의 극심한 가뭄과 폭염, 북극과 남극의 빙하 해빙, 시베리아 동토층의 해빙, 알프스와 히말라야 빙하의 해빙 등 가시적인 기후변화의 징후는 인류에게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구분된다. 자연적 원인으로는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량에 따라 지표면의 온도가 변하기도 하고, 화산이 폭발하여 화산 분출물이 대류권에 도달하는 태양 빛을 감소시키거나, 지구 움직임의 변화에 따라, 예를 들면 지구의 공전궤도는 10만 년을 주기로, 지구의 자전축은 4만 년을 주기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이로 인해 태양에너지를 받는 양이 달라져서 기후가 변할 수 있다(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포털, <https://kaccc.kei.re.kr/>).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기후변화는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의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 기인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온실가스는 대기 중의 열을 흡수하여 저장하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인데,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져서 지구 복사열을 과다하게 흡수하여 지구의 에너지 균형이 깨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프레온가스, 질소 등이며, 이 가운데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가스의 약 88.6%를 차지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기후정보포털, <http://www.climate.go.kr/>



그림 1-1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출처 : KBS NEWS(<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5059>)

home/09_monitoring/info/co2_intro).

이산화탄소, 메탄 및 아산화질소의 대기 중 농도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1750년 이후부터 현저하게 증가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 280ppm에서 현재 410ppm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200만 년간 전례가 없을 정도의 매우 높은 수준이다(IPCC, 2007; IPCC 2021). 이산화탄소는 인간 활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로서 주로 석유와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배출되며 개발로 인한 산림의 감소도 이산화탄소 농도에 영향을 미친다.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농업과 축산업 부문에서 주로 배출된다(IPCC, 2021). 20세기 중반 이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은 이와 같은 인위적인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결국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는 사람들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IPCC, 2021).

2011~2021년 전지구 지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1950~1900년) 대비 1.09°C 상승했는데,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2021~2040년 중에 지구 온도가 1.5°C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IPCC, 2021).

기후변화는 극심한 홍수, 태풍, 폭설, 가뭄, 화재 등 감당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생태계 교란, 해수면 상승,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를 통해 인간의 생명과 삶을 터전을 위협한다. 한국대기환경학회(2011)에 따르면 기후온난화에 따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온 증가와 더불어 폭우, 폭설, 가뭄, 한파, 폭염과 같은 이상 기상 현상이 더 빈번해지고 더욱 강력해진다. 둘째, 온도가 상승하면 물이 팽창하고, 육지의 빙하, 만년설, 그린란드와 남극지방의 빙상 등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데, 해수면이 상승하면 고도가 낮은 태평양 섬들과 항구, 해안 농경지와 주택 등이 침수되어 세계적으로 8,000만 명 이상이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셋째, 기온 증가는 산림분포 지역과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한다. 세계의 곡창지대로 알려진 지역에서 강수량이 감소하고 병충해가 증가하여 식량 생산이 감소하는 한편, 기후 변화로 인간, 가축, 농작물 등의 전염병이 쉽게 발생하고 세계로 확산되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상의 피해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 개발을 위한 생태계 파괴로 인해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이 급증하면서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나 조류독감, 메르스, 결핵, 코로나 등의 전염병이 발생하고 전파되는 빈도가 잦아지는 현상은 생물다양성의 소실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

세계불평등보고서(2021)에 따르면 국제적인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탄소배출량 불평등, 즉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도의 불평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선진국의 상위 10% 인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전체 배출량의 약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지만, 탄소배출량이 작은 저개발 국가 인구의 50%가 배출하는 양은 전체 배출량의 12%에 불과하다. 그러나 홍수, 가뭄, 폭풍 등 기후변화의 피해는 모두에게 같지 않으며 지역에 따라 다르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큰데, 탄소배출을 가장 적게 하는 국가와 인구층이 보다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중남미, 아프리카, 남아시아의 저개발국가, 소규모 도서 개도국, 북극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식량부족과 물 부족,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는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같은 지역 내에서는 피해를 방어할 자원이 부족한 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었다(IPCC, 2022).

기상이변, 기후변화 대응 실패,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손실 등 기후변화와 관련

된 요인들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이다(세계경제포럼, 2021).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현 세대도 그 피해를 비껴가기 어려운 실정이며 다음 세대의 미래는 보장하기 어렵다. 상품의 생산과 유통, 구매, 사용, 폐기 과정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현재 인류의 소비 규모를 고려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방법은 온실가스 농도를 낮추는 것인데,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가능하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인류의 즉각적인 행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실천해야 한다.

4) 경제발전과 행복의 역설

경제가 발달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여가 시간이 증가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증가한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까지 14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행복 수준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미국의 경제학자 이스털린(R. Easterlin)은 경제성장이 인류의 삶을 이롭게 하리라는 당시 사회 전반에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외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스털린(1970)에 따르면 한 국가 안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행복 수준은 증가하지만, 국가 간의 비교에서 국민의 행복 수준은 1인당 국민소득에 비례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경제발전을 이룬 미국의 경우 1946년에서 197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행복하다는 사람의 비율은 1960년과 1970년 사이에 오히려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을 ‘행복의 역설’, 또는 이스털린의 이름을 따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한다.

이후의 연구(Inglehart, 1996)에서 <그림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국민의 행복 수준이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일단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더 이상의 소득 증가는 삶의 만족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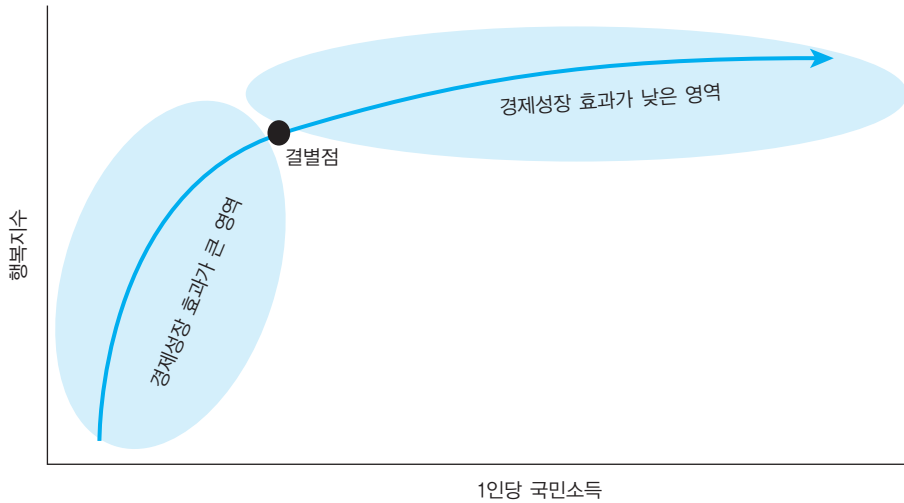


그림 1-2 국민소득과 행복지수

출처 : 이정전(p. 42)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평균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서 1만 5,000달러 수준까지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국민의 행복지수도 증가하지만, 이 기준점을 넘어서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행복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데, 국민의 행복수준이 소득의 영향으로부터 분리된다고 해서 이 기준점을 결별점(decoupling point)이라고 한다(이정전, 2008). 개발도상국에서는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영양상태나 위생상태가 개선되어 국민의 건강상태가 나아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증가하거나 지방과 탄수화물 섭취가 증가하여 비만 위험이 증가하는 것처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인자가 나타난다(이정전, 2008).

사람들은 물질적인 소유와 소비로부터 즐거움을 느끼지만 이러한 즐거움은 일시적이며 점차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 이스털린의 역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고’ 가장 소중한 가치는 시장에서 살 수 없음을 시사한다(브루노 프라이, 알로이스 스티처, 2008).

5)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문제

『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 등 세계의 불평등 연구자들이 이끄는 세계 불평등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오늘날 경제적 불평등은 20세기 초 서구 제국주의가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Lucas et al., 2021). 오늘날 전 세계인의 소득 가운데 소득이 낮은 하위 50% 인구가 차지하는 부분은 서구 유럽과 이들의 식민국가 사이에 격차가 크게 벌어졌던 1820년 수준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불평등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세계불평등 보고서(Lucas et al., 2021)에 제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경제적 불평등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 인구가 전체 세계 소득의 절반 이상인 52%를 차지하는 한편, 소득이 낮은 절반의 인구가 차지하는 소득 점유율은 8.5%에 불과하다. 자산 불평등은 이보다 훨씬 심각한데, 세계 인구 중 자산이 가장 많은 10%의 인구가 전체 세계 자산의 76%를 차지하는 반면, 자산이 적은 전체 인구 절반이 보유하는 부분은 2%에 불과하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축적된 자산의 약 38%는 상위 1% 부자들의 수중에 들어갔는데, 이러한 격차는 자산이 많을수록 자산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피케티 외 25인, 2017: 79). 즉, 자산이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자산의 극심한 불평등으로 인해 점점 더 소수의 수중에 경제적 권한이 더욱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체 인구 가운데 소득이 낮은 50%의 인구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은 국민 전체 소득의 약 16%에 불과하지만, 소득이 많은 상위 10%는 약 46.5%를 차지하였으며, 자산은 하위 50%의 인구층이 약 5.6%를 차지한 반면, 상위 10%는 약 5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상위 1%의 점유율은 소득은 약 14.7%, 자산은 약 25.4%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가진 모든 자산의 약 4분의 1 이상은 자산이 가장 많은 상위 1%에 집중되었다(Chanel, Piketty, Saez, 2022).

소득과 부의 불평등의 심화는 개인과 사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으로 과도한 불평등은 경제성장 둔화, 국내 총생산 감소 및 불안정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경제력이 있는 소수에게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민주주의의 약화,

공정성과 정의 등의 사회적 가치 훼손, 국가적 정체성의 위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값비싼 대가가 뒤따른다(스티글리츠, 2020 : 41).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경제적 불평등은 생활여건, 건강, 교육 등의 생활 전반에 걸친 불평등을 낳는다. 일류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들은 대체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기회는 부모의 학력이 높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가지기 어렵다면 성공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주어졌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불평등은 개인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들은 지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게 되고 개인의 삶, 가족과의 삶, 친구와 친지와의 관계,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이시 저, 오성호 역, 2002). 어린아이들조차도 미래를 위하여 수면 시간과 놀이 시간을 줄이고 공부에 몰두하며 분주하게 살고 있는 현실이다. 알랭 드 보통(정영목 역, 2012)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이 클수록 사회적 지위가 능력에 따른 서열화라고 생각하여 사회적 평가에 대한 우려, 지위에 대한 불안감도 증가한다. 능력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위 보전에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불안정한 직종이나 직업에 종사할 경우 개인의 자아실현에 대한 기대와 직업에 대한 실제 경험 사이의 괴리 속에서 자존감에 상처를 입으며 실망과 불안감이 생기게 된다.

경제적 불평등이 큰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상대적 박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지위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쉬운데, 일차적으로 면역계와 신진대사시스템에 이상이 생기고 심장병, 고혈압, 또는 다른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되며, 간접적으로는 흡연, 비만, 알코올 중독 등 건강을 악화시키는 습관에 빠지게 됨으로써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djaye-Gbewonyo & Kawachi, 2012). 공중보건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격차 큰 국가에서 우울 등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 수, 십 대 출산율, 비만율, 불면증 환자가 증가하는 등 건강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살인율, 수감율, 유아사망율 등 부정적인 지표가 높은 반면, 사회적 신뢰도나 사회 이동성 등 바람직한 지표는 낮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리처드 월킨슨, 케이트 핏킷, 2012).

소득격차가 큰 사회에서는 평등한 사회보다 상대적 위치와 사회적 지위가 더욱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보여 주는 현실적인

방법은 돈을 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과시적 소비로서, 치열한 지위경쟁은 소비경쟁으로 표출되기 쉽다. 소비자는 원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좋게 포장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타인에게 무능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더욱 소비에 몰입하게 되고 결국은 과소비와 낭비가 만연한 소비주의 문화가 만연하게 된다(Frank, 2007).

세계불평등연구소(Lucas et al., 2021)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세계적인 확산과 더불어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증가했지만, 국가마다 어떤 경제 및 사회 정책을 채택하는가에 따라서 불평등의 증가 정도는 차이가 크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선택의 문제이며, 국가마다 불평등을 완화하는 행동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Chanel, Piketty, Saez, 2022; 조지프 스티글리츠, 2020).

4. 현대 소비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 국제적 노력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류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 공동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후문제와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력 있는 행동과 과감한 조치가 요구된다. 국제사회는 일찌감치 기후변화와 경제발전의 한계에 대해 인류 공동의 대응을 촉구해 왔는데, 이러한 대응은 오늘날 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협약은 대기 중 인위적인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체결한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시작으로 ‘차별화된 책임 원칙’하에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의무 이행 방식 등을 규정한 1997년 ‘교토의정서’를 거쳐서, 2015년에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채택하고 2020년부터 국제사회는 새로운 기후체제에 돌입하였다(김상만, 2016).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 합의안으로서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

화 이전 대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로 제한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파리기후협약은 모든 국가가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로 이행 사항을 점검하여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파리기후협정은 195개국 이상의 당사국이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을 만들고, 참여국이 전 세계 배출량의 9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UN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국제적인 노력이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UN, 2015). 2015년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기 위해 ‘단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게(Leave



그림 1-3 지속가능발전 목표

출처 : 지속가능발전포털(www.ncsd.go.kr)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2030년까지 이행할 것을 결의하였다(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unsdgs?content=1>).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빈곤 등 범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며, 좋은 사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틀 안에서 국가마다 세부적인 실행 목표를 수립하고 모든 국가들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UN, 2015).

2)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 실천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현대 소비사회는 지나친 물질주의와 소비주의, 그로 인한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 나아가 기후변화, 소득불평등, 삶에 대한 불만족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와 도전에 마주하고 있다. 소비자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풍족함이 곧 행복임을 말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 더 나은 생활방식에 대한 지혜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현대 소비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자신의 소비 선택이 그가 속한 지역과 사회의 경제, 문화, 정치, 자연생태 등에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는가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다(심영, 2009).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은 개인의 사적 행동이지만 선택에 수반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개인적인 소비 만족의 추구가 사회 전체의 복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비의 목적을 전적으로 개인적인 소비욕망을 추구하는 데 두기보다는 지속가능한 소비, 친환경 소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소비, 지역공동체의 삶을 복원하는 소비, 간소한 삶 등 윤리적인 측면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급속한 경제성장과 대중소비사회의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비자들도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자원이용과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것을 인식하여 미래 세대의 욕구충족을 저해하지 않는 지

속가능소비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소비는 1994년 오슬로에서 개최된 지속 가능한 소비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용어인데, “미래 세대가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제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자연자원 및 독성 물질의 사용과 쓰레기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방식으로 생산된 녹색상품, 친환경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원 고갈, 환경 훼손, 과도한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소비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고 전반적으로 소비 규모를 줄여나가는 새로운 소비 생활양식을 구축하고 실천하는 행동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욕구만을 따른다면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질 리포베츠키 저, 정미애 역, 2009). 소비생활에서 낭비적인 요소들을 재조정하고 새로운 생활방식을 채택하는 용기와 지혜가 요구된다. 소비가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질 때 생산량이 억제되면 자원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송인숙, 천경희, 2016).

경제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은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요구된다. 윤리적 소비란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이다. 여기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이란 경제적 및 법적 책임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책임, 동시대의 인류를 위한 책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홍연금, 송인숙, 2010).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상거래 윤리,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는 구매운동(바이코트, boycott),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불매운동(보이코트, boycott),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녹색소비, 지역사회와 제3세계 노동자의 복지를 고려하는 로컬소비와 공정무역소비, 더 나아가 서로 돕고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지역공동체운동, 소비 이외의 가치 있는 삶의 양식을 복원하는 간소한 삶 등의 소비운동에 소비자가 참여하고 실천함으로써 일상적인 소비생활에서 구현될 수 있다. 윤리적 소비는 개인 소비자의 삶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거래 당사자, 소비를 통해 연결된 노동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삶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현대